

# 알바로 델 포르티요 주교의 시성식 조사 시작

알바로 델 뽀르띠요 (1914-1994) 는 도로 공학사, 철학 박사 그리고 교회법 박사위를 가지고 있었다. 1935년 7월 7일부터 수년후 몸소 지도할 오푸스데이에 소속하였다. 이 다음은 마드리드의 "라 라손 (La Razón)" 신문에 편집된 내용이다.

2004-5-3

델 뽀르띠요 주교께서는 주님을 위한 봉사에 쉬지 않고 노고 하셨고 교회에 평신도들의 역할을 중요시 함에 기여 하였다. 그의 성적인 삶, 사목 경험, 깊은 인간미때문에 올 3월 5일 시성식 조사가 시작 되는것이다.

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 후계자였던 알바로 델 뽀르띠요 몬시뇰의 시성식 조사가 올 3월 5일 시작된다. 오푸스데이의 단장주교였던 그는 창설자의 죽음후에 부터 이 회를서 다스림에서, 열렬한 주님을 위한 봉사, 교회안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을 강화함에 기여하였다. 시성식 조사 개막식은 교황대리 대주교구의 법정인 라테라노 관저에서, 루이니 추기경의 주재로 있게 된다.

수많은 이들은 델 뽀르띠요 주교를 "동 알바로"라고 부르며 세계 모든곳에서 부터 그의 중재를 찾는다. 그는 성 호세마리아를 처음 맞났을때 공학사 학생이었다. 1935년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껴 오푸스데이에 가입하였다. 1944년 사제 서품을 받은후 성호세마리아의 가까운 협력자였고 1975년부터 회를 지도하게 된다. 1946년부터 있었던 로마에서는 특별히 제 2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함에 많은이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교회안에서의 평신도들의 역할을 중요시 여겨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모든 인간들의 현실에 가져가야 합니다. 가족, 직업, 사회생활을 인간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러야 합니다".

공의회에서 사제들의 성직과 삶에대한 «Presbyterorum Ordinis»의 편집작업의 서기를 맡았었다. 1991년 1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부터 주교 서품을 받고 3년후 성지를 방문해

돌아온후 숨을 거두었다. 교황께서 직접 델 뽀르띠요 유해앞에서 기도하려 방문도 했었다.

교황청의 시성 상임 위원회는 시성 조사의 첫 단계, 즉 그의 삶, 덕과 성성의 알려짐을 교구안에서 조사하게 제정 하였다. 이 조사에는 로마 대리 대주교구의 법정과 오푸스데이 자치 단 법정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자치단의 법정의 조사 개막은 3월 20일에 있게 된다. 이 두 법정은 조사에서 소송 (즉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서류를 모음) 할때 같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조사의 마지막 재판은 교황청의 법정만의 자격이다.

알바로 델 뽀르띠요를 포함하여 시성 조사가 시작된 오푸스데이의 회원 신자들은 7명이다.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albaro-del-bboreuddiyo-jugyoyi-  
siseongsig-josa-sijag/](https://opusdei.org/ko-kr/article/albaro-del-bboreuddiyo-jugyoyi-siseongsig-josa-sijag/) (2026-2-8)